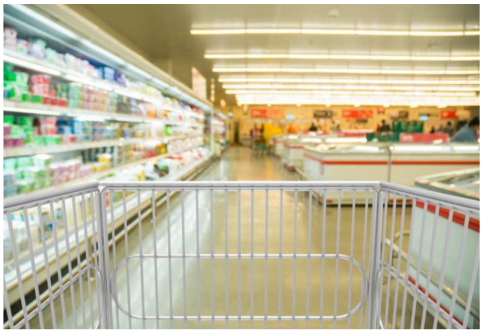
Global Dairy Report
글로벌 낙농뉴스
해외 정책동향 및 낙농뉴스

2022.02.10 | www.dairy.or.kr | 통계조사팀(044-330-2072)

[시장동향] 英, 유제품 소매 판매 코로나19 이전 대비 증가

–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대비 6.3% 늘어



영국의 유제품 소매 판매량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2019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최근 농업원예개발공사(AHDB)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, 우유, 치즈, 버터, 크림 및 요거트를 포함한 모든 품목의 판매량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 전면봉쇄 당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특히 지난해 치즈 판매량은 2019년 대비 13.2% 증가했고, 그 중 체다치즈가 49%를 차지하며 코로나19 이전 대비 판매량이 11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버터의 경우 2020년 대비 1.8% 감소한 반면, 2019년 대비 16.5%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또한, 크림 판매량은 요리에 사용하는 빈도수가 증가하면서 21.3% 늘었고, 요거트도 4.3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AHDB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가 완화로 식당 서비스업이 운영을 재개하면서 슈퍼마켓 등을 통한 소매판매가 주춤했으나, 소비가 꾸준히 이어짐에 따라 전체 유제품 판매량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6.3% 증가했다고 설명했다. 〈 출처 : farminguk.com, 2월 8일자 〉

[지속가능] 케리그룹, 82억원 규모 '낙농 지속가능성 프로그램' 운영

– 소속 농가 대상 재정 · 기술 지원으로 산업의 지속가능성 강화 목적

아일랜드의 식품전문회사인 케리그룹이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6백만 유로(약 82억) 규모의 '낙농 지속가능성 프로그램'을 마련했다.

해당 업체는 지속가능한 업무전략의 일환으로 오는 2030년 탄소배출량을 30% 줄일 계획이다. 이에 따라,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남서부 지역 약 3천여 소속 농가를 대상으로 탄소 및 암모니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수질 개선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재정 및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.

업체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하며, 이번 사업을 통해 농가의 지속가능성 강화로 탄소배출량 저감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지속가능한 유제품을 공급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. 〈 출처 : thecattlesite.com, 2월 8일자 〉

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또한,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